

# 열경화성수지, 가격인상만이 살길!

## 원료가격 상승에 수요증가 영향 분위기 성숙 ... 자구노력 한계 달해

일본의 열경화성수지 메이커가 잇따라 가격인상 협상에 임하고 있다.

원유·나프타(Naphtha) 가격의 급등과 중국의 수요확대에 따라 수급균형이 악화된 것이 요인으로, 원료 메이커들은 고자세로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일부에서는 원료가격 인상을 100% 수용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따라 하류부문으로 갈수록 가격전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Epoxy Resin 수요처인 자동차, 전기·전자 메이커 등의 가격인하 압력을 여전히 거센 상태이다.

그러나 시장이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불포화 Polyester 수지는 잇따른 Alliance를 거쳐 슬림화, 코스트 감축을 단행해온 만큼 최근 들어 원료 상승분을 생산제품 가격에 반영하는데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선두에 나선 것이 Epoxy Resin 메이커들로 최대인 東都化成, Japan Epoxy Resin을 필두로 Dai Nippon Ink & Chemicals 등이 1월말부터 2월에 걸쳐 잇따라 수요기업과의 협상에 들어갔다.

2003년 봄의 가격인상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있어 주원료인 Bisphenol A, Epichlorohydrin의 가격은 2003년부터 계속 상승해 원료가격 상승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왔는데, 과거의 원료가격 인상분을 전가한다는 측면도 있으며 2004년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Phenol 수지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1월부터 주원료인 페놀을 kg당 16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발표됐으며, 최대인 Mitsui Chemicals은 전액 수용할 방침이다. 잇따른 설비상 문제, 정기수리 집중도 있어 수급 밸런스가 악화되고 있으며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이 페놀수지 메이커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대 메이커인 Sumitomo Bakelite를 비롯해 Gun Ei Chemical, DIC, Showa Highpolymer, Hitachi Chemical 등에서 가격인상 발표가 행해졌다.

불포화 Polyester 수지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착공이나 공공투자의 축소를 배경으로 1990년 27만톤이었던 일본국내 출하량이 감소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16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DIC, Showa Highpolymer, Hitachi Chemical이 상호 OEM생산, 혹은 Nippon Shokubai, Mitsuitakeda Chemical, Mitsui Chemicals이 통합회사인 Japan Composites를 발족해 각각 과잉설비 폐기, 철저한 코스트 감축을 꾀해 왔다.

이제까지 Hitachi Chemical, Japan Composites, DIC가 가격인상을 표명했다.

일본에서는 열경화성수지 생산기업들의 자구노력이 한계를 넘어선 가운데 Alliance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원료가격 상승분의 전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4/03/24>